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7-0056830
(43) 공개일자 2017년05월24일

(51) 국제특허분류(Int. Cl.)
A61K 8/97 (2017.01) A61Q 19/02 (2006.01)
A61Q 19/08 (2006.01)
(52) CPC특허분류
A61K 8/97 (2013.01)
A61Q 19/02 (2013.01)
(21) 출원번호 10-2015-0160137
(22) 출원일자 2015년11월16일
심사청구일자 2015년11월16일

(71) 출원인
박숙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길 43, 일신희먼빌 101동 1102호 (동양동)
(72) 발명자
박숙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당미길 43, 일신희먼빌 101동 1102호 (동양동)
(74) 대리인
박정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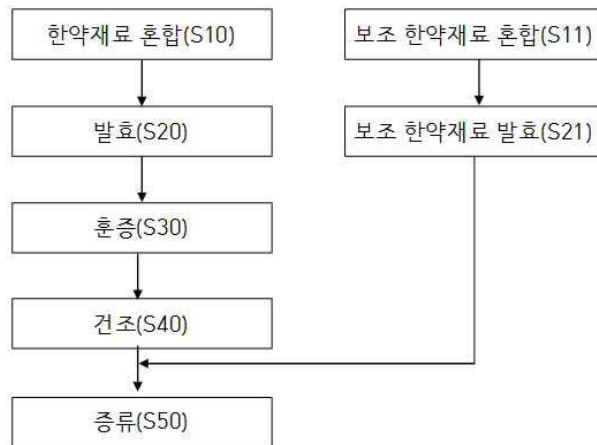
전체 청구항 수 : 총 12 항

(54) 발명의 명칭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57) 요약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황칠나무를 포함하는 한약재료를 발효시켜 효소화하고, 발효된 재료를 발효시에 사용된 효소용액이 발효하여 생성된 발효 효소액으로 혼증하고, 이를 건조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하여 증류하여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대표도 - 도3



(52) CPC특허분류

A61Q 19/08 (2013.01)

A61K 2800/85 (2013.01)

명세서

청구범위

청구항 1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로부터 추출되는 추출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추출물은 상기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한 후 발효된 발효 효소액으로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혼증하며,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를 건조하여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발효는 상기 효소용액을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하고, 상기 효소용액에 상기 한약재료를 침지하여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한약재료의 혼증은 밀봉된 혼증기에서 상기 발효 효소액에 의하여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90 내지 100℃에서 20 내지 40분간 혼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는 70 내지 80℃에서 18 내지 36시간 동안 건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제1항에 있어서,

구기자 120 내지 180중량부 및 굴껍질 120내지 180중량부에 마치현, 개똥쑥, 창이자, 삼백초, 비단풀, 꾸찌뽕나무껍질 및 감초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각각 80 내지 110중량부를 추가한 보조 한약재료를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된 상기 효소용액에 침지한 후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하고, 발효된 상기 보조 한약재료를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에 추가로 혼합하여 상기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여 추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기 위한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와 발효된 상기 보조 한약재료는 1:0.8 내지 1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7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에 있어서,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를 혼합하는 제1단계,

제1단계에서 혼합된 상기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하는 제2단계,

제2단계에서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발효된 발효 효소액으로 혼증하는 제3단계,

제3단계에서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를 건조하는 제4단계, 및

제4단계서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를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는 제5단계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2단계는 상기 효소용액을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하고, 상기 효소용액에 상기 한약재료를 침지하여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3단계는 밀봉된 혼증기에서 상기 발효 효소액에 의하여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90 내지 100℃에서 20 내지 40분간 혼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청구항 10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4단계는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를 70 내지 80℃에서 18 내지 36시간 동안 건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제5단계에서 구기자 120 내지 180중량부 및 굴겉질 120내지 180중량부에 마치현, 개똥쑥, 창이자, 삼백초, 비단풀, 꾸찌뽕나무겉질 및 감초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각각 80 내지 110중량부를 추가한 보조 한약재료를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된 상기 효소용액에 침지한 후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하고, 발효된 상기 보조 한약재료를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에 추가로 혼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

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청구항 12

제11항에 있어서,

상기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기 위한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와 발효된 상기 보조 한약재료는 1:0.8 내지 1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

발명의 설명

기술 분야

[0001] 본 발명은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황칠나무를 포함하는 한약재료를 발효시켜 효소화하고, 발효된 재료를 발효시에 사용된 효소용액이 발효하여 생성된 발효 효소액으로 혼중하고, 이를 건조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하여 증류하여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품의 원료로서 사용 가능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및 이를 제조하기 위한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 기술

[0002]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 Lev.)는 세계에서 오직 한 곳 한국의 해남, 완도와 같은 남부 해안 지역과 제주도에서만 자생하는 상록 활엽 교목으로 겨울에도 낙엽이 지지 않는 수종으로 수피에 상처를 주면 황색의 수지액이 나오는데 이것을 황칠(黃漆)이라고 한다.

[0003] 황칠은 삼국시대부터 황제의 갑옷, 투구, 기타 금속 장신구의 황금색을 발하는 진귀한 도료로 이용되어 왔으며, 이시진의 본초강목에는 황칠나무가 번열 제거, 안질 및 화상치료, 나병에 효과가 있으며 무해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0004] 일반적으로, 피부의 노화 현상, 기미, 주름 또는 주근깨 등이 많아지는 현상은 콜라겐(collagen)이 부족하거나 멜라닌(melanin)의 생성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으로 콜라겐(collagen)은 인체의 각 부위에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하는 단백질로서, 피부의 윤기와 탄력을 유지하는 단백질이다.

[0005] 그러나, 약 18세 이후부터는 피부 내의 콜라겐이 감소하여 탄력과 윤기가 없어지면서, 주름, 검버섯 및 기미 등이 생기게 되고, 약 40세를 넘게 되면 체내 콜라겐의 양은 18세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피부, 뼈, 관절 등의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다.

[0006] 현재까지는 황칠나무의 용도는 자연의 금색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공예품에 사용하는 도료의 원료로서의 용도가 개시된 바 있고, 황칠나무의 잎 추출물 분획에서 항암 작용 및 α-토코페롤보다 다소 약한 항산화 작용, 황칠나무 방향 성분의 신경계에 대한 진정작용 및 강장작용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나, 피부 미백 및 주름개선 작용 또는 피부 미백제 및 주름 개선제로서의 용도와 관련하여 효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0007] 이처럼, 식물성 천연물들은 안전성이 뛰어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을 갖기 때문에 미백 물질의 좋은 검색대상이 되고 있으며, 종래부터 피부노화의 억제기능을 가진 원료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방제로 사용되고 있는 생약, 야채, 과일, 꽃 등의 안전성이 뛰어난 식물추출물로부터 비정상적인 멜라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진 추출물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으나, 적절한 배합 및 추출방법으로부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0008] 이러한 황칠나무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종래의 기술인 한국공개특허공보 10-2012-0012918호의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화장품 조성물 및 제조방법에서는 도 1에 도시한 바와 같이, 마치현, 굴피 및 파리열매가 포함된 한약재료가 100중량부로 이루어진 혼합 한약재료 추출물 및 500중량부로 이루어진 황칠나무 추출물로 이루어 지되, 상기 혼합 한약재료 추출물 및 상기 황칠나무 추출물을 1 내지 70중량% 포함하고, 잔량으로서 화장품 베이스를 포함하는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화장품 조성물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으나, 세척된 황칠나무 및

한약재료에 물,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올 등의 용매를 사용하여 가열한후 한약 증류기를 통해 증류하여 황칠 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화장품 조성물을 추출하고 있다.

[0009] 또한, 한국공개특허공보 10-2013-0090150호의 황칠 추출/발효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및 그로부터 제조된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도 2에 도시한 바와 같이, 황칠나무의 잎, 줄기, 뿌리 중에서 선택된 1종 이상을 물로 추출하여 얻어지는 황칠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시켜 항산화 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을 제안함으로써, 알코올과 같은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용매로 하여 추출 및 여과조작을 통해 침전 또는 침전물의 상부에 존재하는 상등액을 회전증발장치 등의 증발농축기를 이용하여 감압 하에서 물을 증발 농축시켜 황칠나무 잎 추출물을 추출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발효공정을 거친후 여과하여 황칠나무 잎 추출물을 추출하고 있다.

[0010]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기술들에서는 물, 에탄올, 메탄올, 프로판올 등의 용매 사용,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여 된 상등액을 여과한 후 증발농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공정을 채택하거나 또는 발효시켜 여과함으로써 여과공정이 필수적으로 채택되어 있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1]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안출된 본 발명은 한방제품이 한약의 독특한 향과 색상으로 인해 추출물 함유량이 매우 적거나 제품의 색이 갈색으로 변하는 갈변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학제(방부제 등)를 추가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약재료를 효소화 시킨 후 증류추출함으로써 추출물의 향 개선, 불순물 제거, 저자극성의 제품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

[0012] 또한, 본 발명은 발효공정을 통하여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약재료의 유효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

[0013] 또한, 본 발명은 추출된 고농도의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을 화장품 원료인 정제수를 대신하여 사용하더라도 피부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고기능성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다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4] 본 발명의 상기 목적은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에 있어서,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로부터 추출되는 추출물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며, 상기 추출물은 상기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한 후 발효된 발효 효소액으로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혼증하며,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를 건조하여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여 추출하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

[0015]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에 있어서,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를 혼합하는 제1단계, 제1단계에서 혼합된 상기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하는 제2단계, 제2단계에서 발효된 상기 한약재료를 발효된 발효 효소액으로 혼증하는 제3단계, 제3단계에서 혼증된 상기 한약재료를 건조하는 제4단계, 및 제4단계서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를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는 제5단계에 의해 달성된다.

발명의 효과

[0016] 따라서, 본 발명의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은 한약재료를 효소화 시킨 후 증류추출함으로써 추출물의 향 개선, 불순물 제거, 저자극성의 제품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0017] 또한, 본 발명은 발효공정을 통하여 용매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한약재료의 유효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

는 효과가 있다.

[0018] 또한, 본 발명은 추출된 고농도의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을 화장품 원료인 정제수를 대신 사용함으로써 피부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0019] 도 1은 종래의 기술에 따른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화장품 조성물 제조방법의 순서도,
 도 2는 종래의 기술에 따른 황칠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항산화 기능성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의 순서도,
 도3은 본 발명에 따른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의 순서도이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20] 본 명세서 및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나 단어는 통상적이거나 사전적인 의미로 한정해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발명자는 그 자신의 발명을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설명하기 위해 용어의 개념을 적절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에 부합하는 의미와 개념으로 해석되어야만 한다.

[0021] 따라서, 본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와 도면에 도시된 구성은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일 실시예에 불과할 뿐이고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모두 대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출원시점에 있어서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균등물과 변형예들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0022]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0023]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의 순서도이다.

[0024]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 제조방법은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를 혼합한다(S10).

[0025] 제1단계에서 혼합된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시키며, 이때의 효소용액은 효소용액을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때의 발효조건은 효소용액에 한약재료를 침지하여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한다(S20).

[0026] 이후 발효된 한약재료를 훈증기내에 혼합된 한약재료를 효소용액에 침지하여 발효시킨 후 발생하는 발효 효소액을 훈증기의 하부에 넣고, 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 발효된 한약재료를 배지한 후 훈증기를 밀봉한 후 훈증기를 가열하여 90 내지 100℃에서 20 내지 40분간 발효된 한약재료를 훈증한다(S30).

[0027] 훈증기내에 발효 효소액을 넣는 경우에는 효소화된 한약재료와 발효 효소액은 1:0.5 내지 1 중량비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8] 이러한 훈증과정에서는 발효된 한약재료를 훈증한 후 남게되는 발효 효소액은 훈증과정에서 열에 의하여 눌러붙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029] 이후, 훈증된 한약재료를 70 내지 80℃에서 18 내지 36시간 동안 건조한 후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에 대하여 최종적인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의 수득을 위해 한방증류기에서 증류하기 위한 발효 효소액을 훈증된 한약재료의 약 3배 정도의 중량부를 넣고, 한방증류기를 가열하여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함으로써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을 추출하게 된다(S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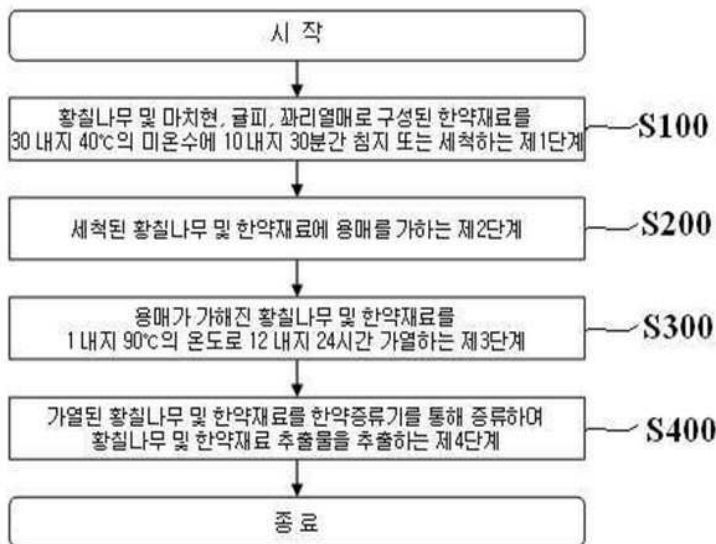
[0030] 또한, 이와 같이 황칠 250 내지 320중량부, 비파 280 내지 310중량부, 편백 140 내지 170 중량부, 단삼 140 내지 170중량부 및 지실 80 내지 110중량부로 이루어진 한약재료만으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을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미백 및 주름개선 등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보조 한약재료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0031] 이때 사용되는 보조 한약재료는 구기자 120 내지 180중량부 및 굴겉질 120내지 180중량부를 기본으로 하며, 필요로 하는 기능에 따라 마치현, 개똥쑥, 창이자, 삼백초, 비단풀, 꾸찌뽕나무겉질 및 감초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각각 80 내지 110중량부를 추가한다(S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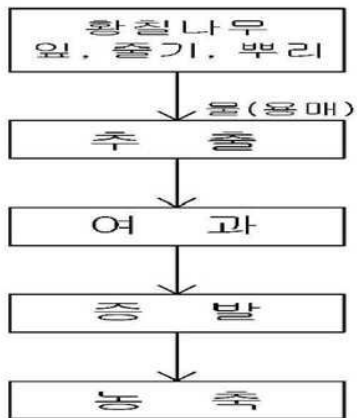
- [0032] 이러한 보조 한약재료는 한약재료와 마찬가지로, 물 5,000중량부에 효소액 350 내지 550 중량부를 첨가하여 제조된 효소용액에 침지한 후 35 내지 42℃에서 2 내지 4일간 발효한다(S21).
- [0033] 이와 같이 발효된 보조 한약재료는 한약재료의 증류과정(S50)에 건조된 한약재료에 추가로 혼합하고 한방증류기를 가열하여 40 내지 100℃의 온도에서 1 내지 24시간 동안 가열하여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함으로써 황칠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을 추출한다.
- [0034] 이 경우 한방증류기를 통해 증류하기 위한 건조된 상기 한약재료와 발효된 상기 보조 한약재료는 1:0.8 내지 1의 중량비로 혼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약재료 및 보조 한약재료에 대하여 최종적인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료 조성물의 수득을 위해 한방증류기에서 증류하기 위한 발효 효소액을 혼증된 한약재료 및 발효된 보조 한약재료의 약 3배 정도의 중량부를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 [0035] 본 발명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바람직한 실시예를 들어 도시하고 설명하였으나, 상기한 실시예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발명의 정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다양한 변경과 수정이 가능할 것이다.

도면

도면1



도면2



도면3

